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 현대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3월 9일 목요일 (음 2월 10일) 제 176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U-20 월드컵 최종 실사 리아는 마틴 U-20월드컵 대회운영 총괄담당관을 비롯한 FIFA 실사단과 대회 조직위 관계자 등 31명은 8일 대회 개막전이 열리는 전주 월드컵경기장과 훈련장, 숙박 등 대회 관련 시설 전반에 걸쳐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 새만금 산단 유치가능 업종 확대

정부, 기존 자동차부품 등에서 ICT 융복합·문화관광분야까지 늘리기로

정부가 새만금에 기업이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유치가능 업종을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과 문화·관광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새만금 산업단지 유치 가능 업종을 기존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기계부품, 바이오·고부가가치 식품 관련 업종에서 ICT 융복합과 문화·관광 분야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폐율·용적률도 법정 상한의 1.5배로 확대해 기업들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새만금내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분석하고 발전·제조·연구시설의 집

적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해상풍력 발전시설과 함께 제조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바이오매스와 석탄가스화복합발전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유치를 추진한다. 특히 새만금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벨트 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새만금 연결도로 개통으로 개발여건이 개선된 고군산군도를 명품관광지로 조성하고 남측관광레저용지에 대중형 골프장 및 관광테마파크를 유치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 "민간 매립사업 시행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연구용지 임대 여건을 개선하며,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해 새만금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매립사업자에게 매립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만 소유권을 인정하는 총사업비 정산제도를 적용했으나 사업자 비용 경감을 위해 사업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의 부담금이 개발법에 감면 근거가 없어 개발사업 시행시 부담으로 작용했으나 새만금지역내 각종 부담금 감면 등 사업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지속적

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새만금지역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남북 십자형 도로 등 주요 기반 시설을 적기에 조성하기로 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연말까지 공정을 47%를 달성하고, 남북도로는 실시 설계 완료 후 올 11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연내 착공하고, 접근성 극대화를 위해 새만금-서김제IC 구간 조기개통 방안을 마련하고, 신항만은 연내 진입도로 및 방파제인 착공을 추진하고 새만금 신공항 수요조사도 올해 안에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3세계잼버리 유치를 통한 새만금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와 노마드 축제 등 정부차원의 선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재용 기자

3면·박근혜 탄핵 선고 10일 오전 11시 / 13면·WBC 네덜란드전 완패... '최악' 모면하려면?

## “현대중 군산조선소 존치를”

도내 대학총장들 “관련학과 학생들 꿈 빼앗는 행위  
장기적 전망 세워 조선소 가동 방안 마련해야”

전북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를 촉구했다. 총장협의회는 “지역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군산조선소 폐쇄 결정이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기업의 입장에서만 결정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은 군산경제의 24% 전북 수출의 8.9%를 점유하는 전북지역의 경제를 이끄는 핵심기업으로 성장했다”며 “그러나 최근 조선산업 침체로 조선소 가동 중단 결정이라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들은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세계 조선산업은 내년을 최저점으로 2020년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다”며 “일본이 조선산업 침체기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한 결과 한국에 조선산업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됐다”며 이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장협의회는 “조선소 폐쇄 후 재가동에 들어갈 경우 고급인력을 재확보하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시설을 재구축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며 “군산조선소의 장기적 전망의 성장 발전가능성을 인정하고 조선업계 근로자 및 협력업체의 생존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조선소 폐쇄는 관련학과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는 행위”라며 “장기적 전망을 세워 군산조선소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군산조선소가 폐쇄되면 조선공학과를 비롯해 기계, 전기, 전자 등 조선 관련 학과나 마이스터 고교(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길이 막히는 것을 우려했다. 총장협의회는 “정부는 군산조선소에 신규물량을 우선 배정해 조선업 경기의 회복을 기다리며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1조2,000억원을 들여 2010년 문을 연 군산조선소는 매년 1조 1,000억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하며 700명의 직원과 사내,외 협력사 80여 곳에서 4,000여명의 종사자를 두고 있으나 조선경기가 악화하자 올 상반기에 문을 닫을 예정이다. /안재용 기자

도내 아침 꽃샘추위 기승... 낮부터 평년기온 회복

전주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기온은 12도  
기상청 “건강관리 주의”

전주 전북지역에서 기승을 부렸던 꽃샘추위가 9일 낮부터 차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8일 “9일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해상으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방에는 낮 한때 구름이 많고 비가 올 수 있겠다”고 예보했다. 9일 아침까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은 평년보다 낮을 전망이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위는 점차 누그러져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1도, 수원 -2도, 춘천 -5도, 강릉 1도, 청주 -3도, 대전 -3도, 전주 1도, 광주 0도, 대구 -1도, 부산 1도, 제주 6도 등으로 관측된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9도, 인천 8도, 수원 9도, 춘천 9도, 강릉 12도, 청주 11도, 대전 10도, 전주 12도, 광주 12도, 대구 13도, 부산 14도, 제주 13도 등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4m 일 것으로 관측된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보통’으로 예보됐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이른 오후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9일 아침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추위 전망이니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추위는 점차 누그러져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민근 기자

### 여름이 시작될까?

**관촌 사선대**  
2천년전 네 신선과 네 선녀의 전설을 간직한 사선대는 조각공원 및 체육시설과, 청소년수련원, 인조잔디구장을 갖추고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전담 구담마을**  
섬진강 강변과 산이 어우러져 한폭의 수채화를 담은 낸 듯한 마을로 포장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옥정호 순환도로 드라이브길**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전국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이 길은 수목산수화에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옥정호 붕어섬(외얏날)**  
호수 속에 있는 신비로운 섬! 세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봄과 가을에는 물안개로 풍경이 절정에 이릅니다.

**임실군**